

 금융위원회	보도 반박				 대한민국 대한환 한국판뉴스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	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형 원 팀장 (02-3145-8040)		

제 목 :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연합뉴스는 10.10일자 “금융당국, 고 DSR 대출비중 축소 검토... 고액·다중채무자에 영향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금융당국이 ‘가계부채 보완대책’의 하나로 고(高) DSR 대출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·관리하고 있으며,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.
 - 이와 관련하여, ‘高DSR 대출비중 인하’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.
-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, 앞으로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 <small>홍익대시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<small>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